실천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라

이 세 가지 일을 주장하는 말이 비록 깊은 맛이 없고 얄팍하나 그 효험은 반드시 길고 멀리 갈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특별히 살피시어 조목조목 깊이 생각하시고 힘써 실천하시어 게을리 하지 않으신다면 태평성대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종(祖宗)[1]께서 물려주신 유업이 이렇게 소중하고, 황천(皇天)[2]이 경계하여 알려 주시는 인(仁)[3]이 저와 같이 현저합니다. 정치는 전하의 정치이고 백성은 전하의 백성인데, 전하께서는 누가 막아서 다스리지 못하십니까? 아! 바르게 깨우쳐 주는 말은 따를 수는 있어도 잘못을 고치는 것이 귀중하고, 완곡하게 인도해 주는 말은 기뻐할 수 있어도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귀중합니다. 만일 전하께서 따

1 조종(祖宗): 임금의 조상
2 황천(皇天): 크고 넓은 하늘로 하늘을 높여서 부르는 말
3 인(仁): 어짊, 사람다움, 사랑의 덕 또는 도덕의 총칭

르기만 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으며 기뻐하기만 하고 실마리를 찾아내지 않아서, 신들이 애타게 드리는 중요한 말을 다만 실속 없이 겉만 그럴듯한 말로만 여기신다면, 만백성이 우러러 보는 희망은 여기에서 끊기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성스럽고 밝으신 생각을 극진히 하십시오.

해설

이 글은 이 상소문의 마지막 끝맺는 부분이다. 임금이 조목조목 깊이 생각해서 꼭 실천할 것을 당부 드리고 있다.

"바르게 깨우쳐 주는 말은 따를 수는 있어도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귀중하고, 완곡하게 인도해 주는 말은 기뻐할 수 있어도,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귀중합니다."라는 말은 원래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인데, 선생이 약간 바꾸었다.

원문의 내용은 이렇다. 곧 "바르게 깨우쳐 주는 말은 따르지 않을 수 있으랴? 잘못을 고치는 것이 귀중하다. 완곡하게 일러주는 말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실마리를 찾는 것이 귀중하다."라는 말인데, 바르게 깨우쳐 주는 말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잘못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완곡하게 일러주는 말을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말의 참뜻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명종임금에게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뜻이다. 이 상소문을 그냥

형식적인 겉치레로 알았다간 백성들의 희망은 여기서 끊어지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명종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의 뒤를 이은 선조 때에도 선생은 계속해서 개혁에 대한 수차례의 상소문을 올렸지만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초기에 속절없이 왜적에게 패한 것은 이렇게 개혁을 이루지 못한 일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法語可從이나 而改之爲貴하고
법 어 가 종　　이 개 지 위 귀

巽言可說이나 而釋之爲貴하니라.
손 언 가 열　　이 석 지 위 귀

» 어휘 풀이

法語: 바르게 깨우쳐 주는 말/可: ~할 수 있다/從: 따르다/而: 문장을 이어주는 어조사. 여기서는 역접의 뜻으로 ~이나 또는 ~하나의 뜻/改: 고치다/之: 대명사/爲: 되다/貴: 귀하다/巽言: 완곡하게 인도해주는 말/說: 기뻐하다. 이 때는 '열'이라 읽음/釋: 풀다

» 문장 구조

1. 문장을 크게 볼 때 두 개의 동일한 구조의 문장이 병렬로 이루어져 있다. 곧 '法語可從, 而改之爲貴 ; 巽言可說, 而繹之爲貴.'로 되어있다. 접속사 而는 모두 역접을 나타낸다.

2. 法語可從과 巽言可說은 모두 목적어를 도치시켜 앞으로 내었는데, 원래는 '可從法語, 可說巽言'이다. 그러니까 "法語를 따를 수 있고, 巽言을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사는 從과 說로서 타동사이다. 곧 주어+타동사+목적어의 3형식의 형태인데 주어는 일반사람 또는 왕으로서 생략되어 있다.
3. '改之爲貴'와 '繹之爲貴'에서 각각 改之(그것을 고치는 것)와 繹之(그 실마리를 찾는 것)는 명사구로서 爲貴의 주어가 되고 있다. 자연히 동사는 爲이고, 貴는 형용사인 보어로서 영어 2형식의 문장과 유사하다. 그럼 누가 고치고 실마리를 찾는가? 그 누가에 해당하는 것이 의미상의 주어인데, '○○가 고치는(또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귀한 것이 된다'이므로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 사람 또는 왕이다. 그러니까 改之와 繹之는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된 명사구이다.
4. 이 말의 출처는 『논어』인데 원문은 "子曰, 法語之言, 能無從乎. 改之爲貴. 巽與之言, 能無說乎. 繹之爲貴."이다.

» 해석

바르게 깨우쳐 주는 말은 따를 수는 있어도 잘못을 고치는 것이 귀중하고, 완곡하게 인도해 주는 말은 기뻐할 수 있어도,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귀중하다.